

민주 “법사위 양보 안 해...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운영위·과방위도 협상 여지 없어 여당 시간 끌면 법대로 원구성”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전 표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았다. 7일 완료”를 이뤄내는 데에 올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신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대표 임기’ 예외 만들려는 민주당 고심 또 고심

당 안팎에 부정적 여론 많고 ‘이재명 일극체제 심화’ 우려도

‘대권 도전 당 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을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 지도부에서 물러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오는 3일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예외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7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이 경우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헌·당규 개정에는 당 주류이자 22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 강성 당원들도 힘을 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규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되, 비상

상황을 대비한 단서 조항을 붙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사실상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후보 경선 직전까지 당 대표로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 자체에 대한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무리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전국지표조사,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9%, ‘적절하다’는 응답은 39%였다.

당헌·당규 개정 반대론은 4·10 총선 압승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맴도는 상황에도 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재명 연임용’ 당헌·당규 개정을 밀어붙여야 하느냐는 인식에서다.

계파색이 얽은 한 수도권 의원의 통화에서 “당 대표 사퇴규정 개정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은 맞지만, 왜 이제 속도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당 안팎에서 왜 우려가 나오는지 지도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2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

갤럽 조사, 현정부 출범 후 최저 부정평가 70%...경제·민생 1위

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70%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

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된’(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9%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29%, 조국혁신당은 2%p 오른 13%, 개혁신당은 2%p 하락한 2%로 나타났다.

자유통합당과 진보당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